

기독교대학 정체성의 구성 요소에 대하여

조용훈(한남대 기독교학과 교수)

1. 서론

대학은 한 나라의 지성을 대표하고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찰스 말릭(Ch. Malik)은 대학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을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¹⁾

현재 한국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기독교대학이 약 50여 개에 이르고 있다. 모든 기독교대학들이 기독교 정신을 표방하면서 설립되었지만, 계속해서 기독교 정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기독교대학들이 일반대학 가운데 ‘하나의 대학’으로 전략해 가고 있다. 대학 정관에 ‘기독교 정신’을 표방하고, 교목실을 통해 채플과 몇 개의 기독교 교양과목을 운영한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교육과 행정, 문화 전반에서 일반대학과 차별성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기에 지금도 새로운 기독교대학을 설립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보다 기독교대학의 역사가 훨씬 오래된 미국에서는 기독교대학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편이다.²⁾ 이는 유명 사립대학들 대다수가 처음에는 교역자 양성을 목표로 교회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세속화되고 말았다는 비판적 인식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런 비판적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수의 기독교대학들의 정체성 회복운동은 한국의 기독교대학들에게 신선한 자극과 도움이 되고 있다.³⁾

II. 기독교대학 정체성의 구성 요소와 회복 방안

2. 기독교대학이란 무엇인가?

현재 우리 나라에는 200여 개의 크고 작은 대학들이 있으며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도 150여만 명이 나 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는 대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대학무용론’이나 ‘대학폐지론’까지 나올 정도로 대학이 심각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⁴⁾

과연 기독교대학은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비판적 분위기에서도 기독교대학의 존재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기독교대학은 과연 위기에 빠진 대학사회에 하나의 대안이 되고 우리사회에 다시금 공헌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들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1) Ch. H. Malik, 신정숙 역, 『대학의 위기: 기독교적 비판과 대안』 (성경읽기사, 1988), 105.

2) W. C. Ringenberg, *The Christian College. A History of Protestant Higher Education in America* (Christian University Press, 1984); G. M. Marsden and B. J. Longfield (ed), *The Secularization of the Academy* (N.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G. Marsden, *The Soul of the American University: From Protestant Establishment to Established Nonbelief*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J. T. Burtchaell, *The Dying of the Light: The Disengagement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from their Christian Churches* (Grand Rapids: Eerdmans, 1998).

3) 많은 모범적 사례들을 들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몇 개를 들라면, 개혁교회 전통의 칼빈대학교, 복음주의 계열의 휘튼대학교, 침례교의 베일러대학교, 루터교의 세인트 올라프대학교, 메노파교단의 고센대학교, 감리교의 메시아대학교, 그리고 가톨릭의 노틀담대학교를 들 수 있겠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라: R. T. Huges and W. B. Adrian (ed), *Models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Strategies for Success in the Twentieth-First Century* (Grand Rapids: Eerdmans, 1997); R. Benne, *Quality with Soul. How Six Premier Colleges and Universities Keep Faith with their Religious Traditions* (Grand Rapids: Eerdmans, 2001).

4) 김동훈, 『대학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 (바다출판사, 1999); 강준만, 『지식인과 대학』 (개마고원, 2002).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태복음 5, 13)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은 곧 기독교적 정체성에 대한 요청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대학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기독교대학 안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대학을 설립하고 기대를 걸고 있는 한국교회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대학을 정의할 때 설립자가 기독교인 개인이나 교회 혹은 교단이고, 대학 정관에 ‘기독교 정신’이란 교육이념을 분명하게 표방하고,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교목실을 두어 채플이나 기독교 과목을 가르치는 대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형식상의 요소들을 기독교대학 정체성의 충분조건이라 할 수는 없다. 실례로, 미국 기독교대학의 세속화 과정에 대해 상세한 연구를 했던 제임스 버첼(J. T. Burtchaell)은 기독교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속화의 진상이 그들이 내세우는 ‘창학이념의 구현’, ‘비전 선언문’, ‘사명 선언문’ 혹은 대학에서 만들어내는 각종 홍보용 팜플렛의 선전문구들로 인해 가려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런 외적인 요소들에 기초해서 상황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⁵⁾

그렇다면 참 기독교대학이란 무엇인가?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에서는 기독교대학을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고, 학문의 제 분야는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연구임을 인식하여 모든 학문을 기독교적 세계관 위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대학”이라고 정의한다.⁶⁾ 그러나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단지 학문의 연구와 교육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연구와 교육은 물론 대학행정과 대학문화 전체가 기독교 분위기로 가득 차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는 기독교 인재들이 배출될 때 비로소 참 기독교대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은 단지 외적이고 형식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내적이고 실질적인 것에서 찾아야 한다. 여기에는 기독교적 교육이념,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려는 교과과정, 그리고 기독교적 교육이념에 헌신적인 대학의 구성원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면학분위기와 기독교적 대학문화 전체가 포함된다.

3. 기독교적 교육이념의 구현

1) 기독교 교양교육의 중요성

기독교대학을 일반대학으로부터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학의 교육이념이다. 대학의 교육이념은 대학의 존재이유와 교육목적, 그리고 미래적 비전을 제시하는 대학의 생명이다. 교육이념이 분명하지 못할 때 대학은 방향을 잃고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대학의 교육이념은 단지 구호에 그쳐서는 안되고 교육과정을 통해 구체화되어야만 한다.

오늘날 일반대학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실용교육과 직업교육에 우선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대학은 단순한 지식인이나 기능인이 아니라 인격인 양성에 관심해야 한다. 여기서 인격이란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이성적 인격’과 올바른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도덕적 인격’ 그리고 자신과 이웃, 사회에 대해 ‘책임적인 인격’을 가리킨다.⁷⁾

기독교 교양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기독교 ‘세계관’(Weltanschauung)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⁸⁾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대학은 다양한 세계관들의 각축장이 되어서 학생들은 커다란 혼란에 직면하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제시하고 교육하는 기독교 교양교육이야말로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사유, 나아가 사유와 삶의 실천, 그리고 종교적으로 보다 깊은 희망과 목적을 발견하게 해 줄 것이다. 이는 기독교 세계관이 인생과 세계에 대한 기독교적 안목을 갖게 만들고 자신들이 전공하는 모든 분야들 근저에 놓여있는 가치관과 철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기독교적 시각에서 새롭게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⁹⁾

5) J. T. Burtchaell, *The Dying of the Light: The Disengagement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from their Christian Churches* (Grand Rapids: Eerdmans, 1998), 849-50.

6) www.view.edu. “기독교대학이란?”

7) A. Holmes, 박진경 역, 『기독교대학의 이념』 (도서출판 CUP, 1992), 38-41.

8) 세계관 개념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A. Holmes, 이승구 역, 『기독교 세계관』 (엠마오, 1994); 전광식, 『학문의 숲길을 걷는 기쁨』 (도서출판 CUP, 1998), 10-40; J. W. Sire, 김현수 역,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IVP, 1995), 22-3.

9) A. Holmes, 이승구 역, 『기독교 세계관』 (엠마오, 1994), 13-6.

2) 대학 채플과 기독교 교양과목

기독교적 교육이념은 교과과정(curriculum)을 통해 구체화되어야만 한다.¹⁰⁾ 아무리 기독교정신을 강조해도 그것을 교과과정에서 구체화하지 않는 한 하나의 공염불에 불과하다. 기독교대학의 교과과정 가운데 기독교적 교육이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교양필수로서 대학채플이고 다른 하나는 교양선택으로서 기독교과목들이다. 전자가 교회당과 예배라는 컨텍스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후자는 강의실과 수업이라는 컨텍스트에서 이루어지고, 전자가 선포적 기능을 한다면 후자는 교육적 기능을 하고, 전자가 기독교적 인격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후자는 기독교적 학문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다.¹¹⁾

일반적으로 채플(chapel)이란 교회의 예배당 이외의 장소인 대학, 병원, 군대 등의 부설 예배실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가리킨다. 대학채플은 강제적이라는 점에서 교회의 예배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현재 대학채플은 대부분의 기독교대학에서 교양필수과목의 하나로서 많게는 8학기, 적게는 4학기까지 이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출석과 결석만 파악할 뿐 성적평가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 대학채플은 비기독교인 학생들에게서만이 아니라 기독교인 학생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자는 채플이 너무 종교적이라는 이유에서 비판적인 반면에 후자는 너무 교양강좌 같다는 이유에서 비판적이다. 기독교적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채플 참여가 의무이긴 하지만, 단순히 반복되는 종교적 제의나 강제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요청된다.

한편, 기독교대학에는 다양한 기독교 교양선택과목들을 개설하여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는 '성서이해', '현대인과 성경', '현대사회와 기독교', '기독교이해',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와 문화', '기독교와 문학', 기독교와 과학 등 다양한 이름의 과목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독교 교양과목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강 학생들의 숫자를 줄이고, 외래 강사에 의존하는 비율을 줄이는 외에도 교육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즉, 기독교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학생이 대부분임을 염두에 두어서 강의내용이 일종의 '신학입문'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지나치게 복음전도나 개종의 방편으로 강의를 활용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객관적 학문성이 약화될 경우 자칫 학생들로부터 외면 당하기 때문이다.¹²⁾

4. 기독교적 대학문화의 형성

기독교대학을 일반대학으로부터 구분시켜 주는 또 다른 요소는 기독교적 대학문화, 즉 기독교적 대학 분위기이다. 대학생활에서 기독교적 분위기가 중요한 이유는 교육이란 강의실에서만이 아니라 교육자와 피교육자, 그리고 교육환경의 요소들이 상호 연결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별히 인격교육은 지식교육과는 달리 공식적인 교과과정 이외의 비공식적인 교과과정이나 교과과정 이외의 활동들을 통해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학문화는 개인주의의 확산, 물질주의 가치관, 그리고 쾌락주의 도덕관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비기독교적인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다. 학술문화가 사라지고 그 대신 먹고 노는 문화가 퍼져가고 있다. 다전공 혹은 복수전공이란 제도 아래 졸업이수학점을 줄인 결과 학생들은 더 많은 자유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 체육대회, 학과별 MT, 개강 및 종강 파티, 수학여행, 졸업여행 등 온갖 종류의 행사들도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있다. 재미있는 강의만을 추구하면서 쉽게 학점을 따려고 하는 학생의 태도나 학점 인플레이 현상도 학술문화를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학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의 축제를 보게 되면 먹자판, 놀자판, 노래판, 술판의 저질 세속문화로 변질되어서 기독교적 대학분위기를 만들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건강한 기독교 대학문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대학의 우선적 목표는 진리탐구를 위한 학문활동이다. 둘째, 학사력(曆)과 교회절기를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사순절, 부활

10) '교과과정'이란 학교의 교육목적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계획되어진 일체의 활동으로서 여기에는 교육의 목적, 교육의 장(場), 교육방법, 교육평가 등의 요소들이 포함된다.

11) 강영선, "기독교 교양과목을 통한 선교", 한국기독교대학교목회, 「대학과 선교」 창간호(2000), 34.

12) 강영선, 위 책, 36-7.

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과 같은 기독교의 절기들은 기독교 전통이 종합되어 나타난 문화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대학에서 학사력은 학사력대로, 기독교 절기는 절기대로 서로간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각종 동아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인격적 만남을 가능케 하며, 관심하는 분야의 학문을 심화시키고 건전한 취미생활을 하게 하는 좋은 기회다.

5. 대학구성원의 소명과 헌신

1) 건강한 대학생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은 대학구성원의 소명과 헌신을 통해 만들어진다. 모든 조직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이기에 앞서 사람의 문제로 파악되어야 한다. 대학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이념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동조하는 학생이나, 그러한 교육이념에 대한 소명감으로 헌신하는 교수와 행정직원이 없다면 아무런 교육적 효과도 없게 될 것이다.

기독교대학의 교육목적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을 전인적 인격체로 형성시켜 장차 교회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꾼을 길러내는 데 있다. 아더 홈즈(A. Holmes)는 기독교대학이 목표로 하는 건강한 대학생의 조건으로서 영적 덕목들(소명과 헌신), 도덕적 덕목들(사랑과 정의감), 지적 덕목들(폭넓은 지식과 역사의식, 그리고 대화능력 등), 책임적 행동들(양심, 인내, 참여 등), 그리고 자각적 특질(겸손과 배우려는 자세)을 언급한다.¹³⁾ 하지만 이런 이상적인 목표는 피교육자인 학생 자신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도달하기 어렵다. 미국에서 기독교 전통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휘튼(Wheaton) 대학의 경우 상당수의 학생들이 복음적 열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활 전반에 기독교적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¹⁴⁾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학습목표가 분명하고 기독교적 교육이념에 동조하는 신입생을 모집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2) 유능하고 헌신적인 교수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인적 요소는 교수들이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학문적·도덕적·신앙적 영향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능하고 헌신적인 교수들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대학이 연구중심대학으로 변하면서 연구업적을 중시함에 따라서 교수들도 학문적 업적에 우선 순위를 두게 되었다. 그리고 개인주의의 확산에 따라 개인의 이력과 경력을 대학 공동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전공이 세분화되면서 자기 전공에만 갇혀 있는 외골수가 늘어나고, 대학이 거대화되면서 학생들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와는 달리 일정한 자격교육이 없이 오직 박사학위와 연구업적 만으로 강단에 서게 됨으로써 교육과 도덕적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신앙 깊은 교수들조차도 처음에 가졌던 소명감이 약화되면서 기독교 교육이념의 구현이나 기독교 대학문화 형성에 무관심해지고, 마침내는 대학의 채플에 대해서마저도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대학 현실을 인식하여 학교당국과 이사회는 보다 신중하게 교수를 선발하고 임용해야 한다. 교수의 일차적 의무는 진리탐구와 가르침에 있기 때문에 양질의 강의와 우수한 연구 능력을 갖춘 교수를 임용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교회출석확인서나 세례교인증명서와 같은 형식적 서류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학의 창학이념과 교육이념을 명확히 제시한 후 그것에 동의하는지,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지 확인해야만 한다. 그리고 기독교대학 교수로서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신앙과 학문을 통합할 능력과 의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6. 대학과 교회의 바람직한 관계

13) A. Holmes, 『기독교대학의 이념』, 112-4.

14) R. Benne, *Quality With Soul. How Six Premier Colleges and Universities Keep Faith with Their Religious Traditions* (Grand Rapids: Eerdmans, 2001), 150.

기독교대학을 일반대학과 구분시켜주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교회와의 관련성이다. 모든 기독교대학은 교회적 배경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여전히 기독교 재단이나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이사회로부터 지도와 감독을 받고 있다. 교육이념도 그리스도의 정신에 기초한다. 그리고 대학의 구성원들, 특히 교수와 행정 직원은 전부 그리스도인들로서 교회에 속해 있다. 따라서 대학과 교회 사이의 관계 여부가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대학과 교회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대학이 교회를 후원자로 보기보다는 성가신 간섭자나 제거되어야 할 감시자로 보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한 책임은 대학과 교회 양자 모두에게서 찾을 수 있다. 먼저, 교회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보수적인 한국교회 신앙이 지니고 있는 반지성적태도를 언급할 수 있다.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란 지성과 무관하며, 지성의 전당인 대학은 반기독교 문화의 전도자라고 생각한다. 기독교인 부모조차도 기독교대학의 필요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 자녀들을 기꺼이 기독교대학에 보내려 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청년부에 대해서는 관심하지만 그들이 교육받는 대학의 선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교회는 대학이 필요로 하고 있는 재정문제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결국 대학으로 하여금 교회와 기독교 전통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시키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교회가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비합리적 강제를 하려고 할 때 대학과 교회의 관계는 악화되고 만다.

기독교대학과 교회의 관계가 멀어지는 또 다른 책임은 대학 자체에 있다. 오늘날 기독교대학들은 학문적 수월성과 도덕적 탁월성 면에서 일반대학과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교수들은 교회나 교단에 대해서보다는 그들이 속해 있는 조직체인 학회에 대해 더 충성심을 발휘한다. 대학의 자율성이 커가면서 어쩔 수 없이 설립교단과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학과 교회의 관계가 밀접해져야 한다. 이계준의 주장대로 대학이 교회를 소외시키는 것은 자신의 정신적 동역자를 상실하는 것이고, 교회가 대학을 선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대학을 완전히 세속문화에 내맡기는 무책임한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¹⁵⁾ 이를 위해 우선, 대학과 교회는 각자의 사명과 역할이 다른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대학이 학문연구를 통해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면, 교회는 설교와 성만찬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드러낸다. 따라서 기독교대학은 교회의 도그마(dogma)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기독교적 원리에서 벗어나서도 안 된다. 전자는 도그마로 교육을 희생시키는 반면에 후자는 주소 없는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위협하기 때문이다.¹⁶⁾

둘째, 대학과 교회는 각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여 서로를 돕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대학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국공립대학과는 달리 국가의 재정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기독교대학들은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수를 늘리거나 일반 기업체나 지역사회에 의존하게 된다. 그럴수록 교회의 영향력보다는 재정적 기여를 하는 일반인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교회는 교회 청년들을 기독교대학에 보냄으로써 기독교대학을 믿고 기대하며 신뢰한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생이 줄어들면서 대학마다 신입생 모집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 부모들과 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한편, 대학은 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의 지도력을 향상시키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지역 목회자들의 계속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평신도 지도자들의 지도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 자료나 공간들을 지역교회를 위해 개방함으로써 지역교회를 도울 수도 있을 것이다.

7. 맺는 말

위에서 우리는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회복과 재정립을 위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기독교적 교육이념을 확고히 하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대학구성원인 학생과 교수, 그리고 행정직원의 소명과 헌신이 중요하다. 셋째, 기독교교육은 단순한 지식

15) 이계준, “서론: 기독교 대학과 학원 선교”, 이계준 편, 『기독교대학과 학원선교』(전망사, 1997), 16.

16) 이계준, 위책, 14.

교육이나 기능교육이 아니라 인격교육이기 때문에 강의실 바깥, 그리고 비공식적인 교과과정을 포함하는 대학문화 전반의 기독교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넷째, 대학과 교회의 상호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우선, 이 글은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각 세부 항목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대학들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서 바람직한 기독교대학의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한국 기독교대학의 모델이 되었던 미국의 기독교대학들의 실패의 역사와 새로운 시도들에 대한 연구도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외에 아시아 각국의 기독교대학들의 역사 역시 한국보다는 길기 때문에 이들과의 교류와 협력도 한국 기독교대학의 발전에 유익할 것이다.

(약력)

한남대 기독교학과 교수

독일 Bonn대학 신학박사(기독교윤리전공)

<기독교 환경윤리의 실천과제>(대한기독교서회, 1997)

<지구화 시대의 기독교>(대한기독교서회, 1999)

<동서양의 자연관과 기독교 환경윤리>(대한기독교서회, 2002)

Entwicklungspolitik und Kirche(Waxmann Verlag: Berlin, New York, 2000)

아내 서현실과 4학년인 조해인(딸)이 있음.

대덕장로교회 협동목사로 섬김.